조계종 통합 종단 50년 내일을 위한 핵심과제 7

〈4〉사부중 종단 참여

신도참여 '사찰운영위' 등 인식 개선 과제

조계종은 1962년 통합종단을 출범한 이래 오늘날까지 조계종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아직 종단운영에 있어서는 사부대중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7가지 핵심과제 가운데 사부대중 종단 운영 참여 확대 분야의 과제를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8. 15 광복 후 교단의 청정과 승풍을 진작하려는 종도들의 원력에 의해 불기2498(1954)년 정화운동이 일어나 자정과 쇄신으로 마침내 종단의 화합이 이룩되어 불기2506(1962)年 3月 22日 종헌을 제정하고…(중략)"

현행 조계종 종헌 전문 중 일부다. 종헌의 대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전문에는 종헌 제개정의 주체가 종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종단 구성에 대한 종헌에도 승가(비구 · 비구니), 재가(우바새 · 우바이)의 자격 요건이 기술돼 있다. 이는 사부대중이 종단 구성의 근간을 의미한다.

종헌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종단 현실은 비구 중심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원로회의, 호계원, 법규위원회와 같은 종정 기구에는 비구 스님만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종단기관을 비구 스님들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다. 재가자의 경우 신도회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단 내에서의 권리와 의무, 역할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법안 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은 "조선조 가부장적 전근대적 권력구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현대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종단 권력 구조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효탄 스님(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은 "비구니 스님 참종권도 확대가 안되는 상황인데 재가자의 종단 운영 참여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사부대중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하다. 관습과 관행이 바뀌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과) 역시 "비구니 스님과 재가자의 종단 운영 참여는 시대적 과제"라며 "비구니 스님 위주의 종단 운영은 결국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온다. '사람 위에 스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비판했다.

그나마 비구니 참종권 확대에 대한 논의와 시도들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전국비구니회 주최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비구니 승가의 위상과 역할'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교구본사주지 선거에 혜덕 이상의 본말사주지 비구니 스님들을 포함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이유로 지난 3월 종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탁연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비구니 승가의 종단 운영 참여는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며 "무작정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 시대에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재가 종무행정을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종법 마다 제한돼 있는 '비구' 한정 조항을 '승려'로 개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구니 승가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탁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은 자신이 출가 목적이 마음공부라 종단 운영에 잘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종단의 종도라면 종단 운영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함께 가진다"며 비구니 승가의 변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사찰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사찰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안 스님은 "아마 사찰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제대로 운영되는 사찰은 전체의 15%정도 안될 것"이라며 "운영위원회만 잘 운영돼도 사부대중의 참여는 지금보다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스님의 역할이 수행과 전법, 교화에 있다면 재가불자의 역할은 이 법을 실천하고 발전하는데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경제가 중요하듯 일선 사찰의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장이기도 한 법안 스님은 사찰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재제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각 사찰별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주지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등 제재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사찰운영위원회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부대중의 종단 운영 참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할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식 개선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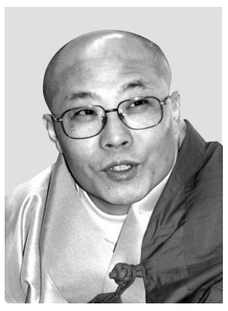
법안 스님은 "이제 종단도 수평적 리더십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을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활성화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단 역시 중앙신도회를 파트너로 종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종단 운영위원회를 구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탁연 스님도 "사부대중 참여의 키는 사실상 비구스님들의 쥐고 있다. 비구 스님들의 종법 개정 의지와 더불어 비구니 승가의 종단 운영 참여 의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 역시 "사찰운영위원회법이 개정 등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의식이 바탕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며 "승가와 재가가 서로의 역할 분담할 수 있는 수평적 구조로 그 틀이 변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재가신도 역시 기복신앙을 넘어서는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비구니 참종권 확대 시대 흐름
종법 '비구' 한정조항 '승려'로
'사찰운영위' 法 있어도 사문화
운영위 의무화 등 종법 개정 필요


법안 스님


탁연 스님


효탄 스님


성태용 교수


사부대중이 조화롭게 함께 할 때 한국불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종단 운영에 대한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방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6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6월 5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韓國佛教中興祖 鏡虛禪師門下
釋迦如來正法眼藏 七十六世
萬翁道一大禪師 傳法弟子 建幢式

석가여래로부터 한국불교중흥조 경허선사의 법맥을 이은 만옹당 도일대선사의 전법을 전수받을 대덕큰스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번 전법을 전수받는 대덕큰스님들은 석가여래정법안장 제77세 한국불교중흥조제5조로 인가 받으셔서 만옹도일문도회 문형제가 되어 법통을 보존하고 법을 전수하는 큰스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6년 6월 9일(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접수 후 개별 통보
◈ 자 격 조 건 |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 / 법납 20년 이상 비구, 비구니
◈ 접수준비물 | 신청서 1매. 수계첩. 증명사진 1매. 건당비.
◈ 신청 우선순위로 법제자 서열등록
◈ 접수마감일 | 2012년 5월 23일 오후 5시
◈ 건당하실 스님들께 내리는 다섯가지 法物
(1) 25조 가사 (傳統 上品25條 祖衣 傳衣) (2) 발우 (此如來應量器 三輪淸淨具 傳鉢)
(3) 법권 (鏡虛禪師法脈 韓國佛教中興祖第5祖로 認可) (4) 계보 (釋迦如來正法眼藏 祖師原流七十七代 系保)
(5) 전법계 (歷代相傳之 咐囑法 偈誦)

* 당일 만옹도일문도회 문형제들께서도 증명사로 동참바랍니다.

문 의 처 / 053)325-5288 팩 스 / 053)325-4848
문도회장 / 010-3900-3050 총 무 / 011-586-4648

석가여래정법안장 제77세 한국불교중흥조 제5조
만옹당도일 법통보존회 문도회장 혜강능인 합장